

가미야 스즈키 가문에 남겨진 귀중한 물품들 -가재도구, 고문서 조사를 통해-



▲사계풍속(사민도)도 병풍

가미야 스즈키 가문에는 중요문화재 건물 외에 가재도구와 가구, 고문서 등이 많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.

가재도구와 가구는 약 4,000점이 전해지며 의복, 장롱, 상이나 그릇 등의 식기류, 된장통 등의 양조도구, 제등이나 사방등 등의 조명도구, 병풍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.

특히 에도 시대 말기 것으로 추정되는 ‘이정천부대시계’ 나 전·2대 하나부사 잇초 필 ‘사계풍속도(사민도)병풍’ 등은 가미야 스즈키 가문의 융성했던 생활 양상을 상징하는 물건이며 이러한 물품들을 입수할 수 있었던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.



▲이정천부대시계

【COLUM】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과 지금까지 남아있있는 수수께끼



▲왼쪽: 큰 광에 보관되었던 장부나 식기
▲오른쪽: 조사하기 전의 저장 등



▲상과 그릇



▲오하구로(치아를 검게 칠하는) 도구

서장이나 장부 등 약 2만 점에 이르는 문헌자료는 가미구라와 오구라(큰 광)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2012년도부터 정리되어 2021년에 목록을 간행했습니다. 특히 금전 출입을 기록한 장부는 장사와 관련된 것, 소유했던 토지 경영과 관련된 것 등 방대한 수가 남아있습니다.

현시점에서는 영주 혼다 가문뿐만 아니라 오와리 번 중신이었던 와타나베 한조 가문이나 주변 마을들의 영주인 하타모토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것, 헤키카이군, 하즈군의 미카와만 근처의 신전을 덴포~안세이 기(1830~60)에 입수했던 것 등이 밝혀졌습니다.

한편 상호이기도 한 ‘가미(종이)’ 에 대해서는 종이를 상품으로 한 상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적어 이 점에 대해서는 수수께끼가 남습니다. 앞으로 고문서 조사가 진척됨으로써 가미야 스즈키 가문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발전해 나갔는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